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미래도시새로운 이정표 제시

###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지친 현대인에게 ‘생각’과 ‘쉼’을 주는 ‘정원’ 내륙 국가정원·해양 국가정원 동시 보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국가 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과 탐사르습지를 품고 있는 순천만습지, 그리고 순천 시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2013년에 이어 10년 만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순천시는 이 시대의 화두인 ‘탄소 제로’실천과 모든 관람객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국내 처음 시도되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의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

박람회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핵심 키워드를 설정해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외국의 정원을 그대로 모방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창조적인 도시계획으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제로’실천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박람회는 총 사업비만 2천여 넘게 투입되는 매머드급 행사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아 순천시와 전남도,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다.

순천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낸 바 있다.

제1호 국가정원 탄생과 함께 정원문화의 싹을 틔워내면서 현재 충주시를 비롯한 춘천시, 정선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 뛰어든 정도다. 특히 노관규 시장은 지난 2009년, 흑두루미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순천만 전봇대 282개를 전격 철거해 ‘전봇대를 뽑은 그 남자’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노 시장의 이 같은 부단한 노력으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당시 15만 명에 머물던 관광객도 300만 명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조류인플루엔자 폐해 순천만으로 역류되면서 전 세계 흑두루미의 60%에 달하는 1만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순천시는 순천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천변 강변도로 일부 구간을 광활한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평소 차량이 달리던 도로를 맨발로 걸으면서 휴식과 만남을 이어가는 소통의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이 ‘그린아일랜드’는 길이면 1km에 달하며 이곳을 통해 도심과 국가정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순천시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한 저류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쉼과 힐링의 공간인 ‘오천그린광장’으로 조성했다.

저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계절 잔디와 야간경관, 1.2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마로니에길이 더해진 이곳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해방구’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동천 둔치까지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통으로 고민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핵심 콘텐츠로 선보일 ‘국가정원벚길’은 순천 도심

박람회 준비중인 국가정원 전경



을 가로지르는 동천에서부터 국가정원까지를 뱃길로 연결한 첫 시도다.

서울 및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은 KTX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 도보로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한 뒤 체협선인 ‘정원드림호’를 타면 15분 만에 국가정원에 편하게 도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체험선 운영을 계기로 체험 선박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박람회장 주변 풍덕동 등 농경지와 공한지를 활용한 100만 평의 ‘경관 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농경지에 각종 계절 꽃을 식재해 논아트(논에 각종 이미지와 텍스트를 새겨 넣는 작업)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내내 계절 별로 피는 형형색색의 꽃을 즐기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은 꽃과 나무의 향기로 가득 찬 순천의 속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정원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다양한 정원 콘텐츠와 어울러지는 문화행사도 더욱 풍성한 박람회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7개월의 대장정을 알리는 3월 31일 개막식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상 플로팅 무대에서 공개된다. 물 위의 정원에서 공식 기념행사와 K-pop 공연이 이어져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4월 오천그린광장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된 가운데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봄 업(UP)페스타’에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단체장이 총출동했을 뿐 아니라,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공연을 보기 위해 국내외 팬들과 시민 2만여 명이 운집한 바 있다.

순천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상설 주제공연과 퍼레이드, 박람회 속 미니축제인 테마파크, 국내외 유명아티스트 초청공연 등을 연중 진행함으로써 국내 최상의 문화예술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날’ 및 ‘시민의 날’ 등 품격 높은 국내외 협력행사를 유치하고 정원 작품 경연대회(순천만가든쇼)에서 최종 선정된 정원 작품 50점(국내 43, 국외 7)의 수상들도 전시해 세계인들이 정원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이 치유의 공간, 웰니스 관광지로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노 시장은 “웰니스, 메타버스 시대에 새로운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원은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박람회로 순천은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하고자 한다. 바로 ‘가든스테이’다.

총 35동으로 꾸며진 숙박동에서 순천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만을 활용한 고급 만찬을 즐기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특화 체험상품이다.

하루 100명만을 예약 받아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내내 운영된다. 또 하나의 웰

니스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건강 치유법인 어싱(맨발걷기)길이다.

순천시는 맨발로 걸으며 도심 곳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에 걸쳐 총 12km의 어싱길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서도 세계자연유산인 탐사르습지길 4.5km는 다양한 생물과 갯벌, 갈대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미래정원인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도 눈여겨볼 만한 콘텐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생산유발 1조5천926억, 부가가치 유발 7천156억과 함께 2만5천여 명의 고용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노관규 시장은 “수치적인 효과를 넘어 2023정원박람회는 수도권 벨트가 지고 있는 점을 나눠줄 수 있는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순천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 노관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를 평소 강조해 왔다.

노 시장은 “전국의 도시들이 국가정원 조성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어느 행사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통한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순천만과 여지만 일대에 대해 국가 해양정원 지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리되면 순천은 내륙 정원과 해양 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를 박람회 이후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도시를 잇는 거대 정원 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정원에 삽니다’를 추구하는 순천시가 향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의 일환으로 추진된 박람회 현장설명회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술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유통과정 및 그 실행 요건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각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